



도시
재생
뉴딜

2019. 08
vol.09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2019. 08 vol.09

* Cover story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도시재생

* Meet up

'같이의 가치'를 실현한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 Focus on

플랫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열다



리스본 LX팩토리는 19세기에 지은 방직 공장지대의 건물을 리모델링해 젊은 창업가를 위한 공간이자 개성 있는 상업 장소로 재탄생시켰다. 포르투갈 출신이거나 리스본에 정착한 크리에이터와 사업가들이 운영하는 33개의 숍과 20개의 레스토랑, 98개의 오피스 스튜디오가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생태계 조성

도시를 이루는 요소가 한 가지가 아닌 것처럼 도시를 재생하고 성장시키는 것 역시 한 가지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은 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 전통과 산업, 경계를 관통하며 솔루션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대학, 공공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연계해 전문가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나갈 역량과 유연한 사고를 가진 도시재생 전문가를 키우고 그들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장을 열어주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의 아이디어와 전문성이 모여 활발하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도전하는 도시. 다양한 구슬이 모여 아름다운 목걸이가 되듯, 각자의 재능을 갖춘 사람들이 조화와 화합을 이루는 도시.

도시재생 뉴딜이 함께 이루어나갑니다.

* Contents

*
*

06

Cover story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도시재생

12

Meet up

'같이의 가치' 를 실현한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18

Focus on

플랫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열다
도시재생 스타트업 익선다다 대표
박현아, 박지현

20

Carry on

최고의 전성기를 재현하다
대구 북성로

24

Look at

도시의 고립을 푸는 열쇠, 정원
가든디자이너 오경아

26

Get in

천년의 시간이 흐르는 그 골목을 거닐다
강릉 시나미 명주거리

30

Theme map

줄서서 먹는 맛집
알고 보니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이 운영

*

32

News in

34

SNS in



낡고 오래된 것을 버리고 허무는 것보다
역사와 가치를 발견해 새로움을 입히는 도시재생 뉴딜.
그 변화의 선순환은 어두운 골목을 환하게,
생기 없는 마을을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오해와 무관심 속에서 험겨웠지만
이제는 모두가 웃으며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재생.
그 목적은 단 하나, 바로 국민의 행복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2019. 08 vol.09

발행인 김현미, 변창흠
발행처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행일 2019년 8월 28일
통권 9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홈페이지 www.city.go.kr
블로그 blog.naver.com/newdeal4you
페이스북 www.facebook.com/newdeal4you
기획·디자인 The SMC(02-816-9799)

<도시재생 뉴딜>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도시재생

도시재생은 공간 혁신, 문화, 복지, 일자리 등을 아우르는 복합사업이다. 기존의 일방적인 도시개발 방식과는 달리 걸모습 보다 프로세스 전체의 재생을 추구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변화를 동반한다.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갖춘 도시의 청사진을 완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의 참여와 관심이다.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정부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이 도시재생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대학과 공공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섰다. 청년들이 도시재생 분야에 생기를 불어넣어 도시 혁신의 바람이 일기를 기대한다.



청년창업 핵심거점

창업준비생 P씨는 요즘 마을에 새로 생긴 이음 플랫폼으로 출근한다. 폐광촌의 버려진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된 이곳은 청년창업의 핵심 활력거점으로 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위해 활동공간과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재생 사업이나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하는 기회도 마련한다. P씨는 플랫폼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에 참여해 창업 분야와 관련된 정보도 얻고 관련 창업가 선배들을 만나 실질적인 조언도 들을 수 있었다.



도시재생 해커톤

춘천 토박이 디자이너 J씨는 자신의 마을에 좀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도시재생 해커톤에 참가하게 되었다. 건축가, 문화기획자, 사회적기업조합원 등 다양한 배경의 참여자들과 한 팀을 이룬 J씨는 직접 현장을 돌아보고 주제를 선정, 각자 지역의 문제점 해결과 도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나눴다. 해커톤에서 논의한 아이디어로 사회적기업과 협동해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청년인턴

경기도 군포에 사는 Y씨는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의 SNS 기자단인 도시樂특파원으로 활동했다. 각 지역의 특성이 담긴 다양한 도시재생 방식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며 도시재생 업무에 관심을 갖던 차 도시재생 뉴딜 청년인턴십 소식에 망설임 없이 지원했다. 청년인턴으로 선발된 후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역자원 조사, 주민의견 수렴, 자율프로젝트 등 다양한 실무를 통해 도시재생 전문가로 한발 더 성장하고 있다.

혁신거점으로 청년창업 허브 조성*

버려진 유휴공간이 청년들의 꿈을 펼치는 창업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국토부는 '22년까지 전국 250곳의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 청년창업 공간과 복합문화시설 등 혁신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중 100곳은 청년창업 지원 시설로 유휴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 젊은 인재들이 모이는 청년창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의 청년단체, 창업가, 청년상인,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년조직, 지역대학과 함께 힘을 모아 청년창업지원센터, 스타트업 공유 공간, 청년주택 등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창업 과정에서 전문가 멘토링, 시제품 사업화 진단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공간도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덜는다.

1. 유휴 공간에서 청년 창업 중심지로

- 시흥시 청년스테이션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청년스테이션'은 취업부터 창업까지, 다양한 청년 활동을 지원하는 거점 공간이다. 전체 면적 1천500㎡으로, 청년활력 공간과 공유 주방, 강의실, 회의실, 작업실, 커뮤니티룸 등을 갖추고 있다. 청년활력 공간에서는 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서관과 카페, 갤러리 등으로 활용되며 커뮤니티 룸에서는 개인이나 소규모 그룹이 모임을 할 수 있고, 스튜디오에서는 다양한 실험과 창작활동을 하게 된다.

취업지원청년학교 프로그램으로는 취업의 기본 소양을 기르기 위한 영어와 코딩 수업부터 프레젠테이션 방법, 면접 노하우, 대기업과 공기업 취업 특강 등 실제 취업준비생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운영된다.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인기 창업 분야인 가족공예, 유튜브, 웹툰작가 등에 대한 상세 창업 준비와 자격 취득 준비 등을 배울 수 있다.



촬영. 이지도르 제공. 공공프리즘

2. 민관 협력으로 청년 공유 비즈니스 플랫폼 형성

전문성과 자본을 갖춘 민간기업의 참여는 도시재생 사업을 체계화, 가속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정부는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청년 크리에이터들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젊고 역량이 있는 청년들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다시 지역에 청년을 불러 모으는 선순환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SK, CJ 등 국내의 민간기업은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해 정부와 도시재생 전문가, 주민과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쇠퇴한 마을에 다시 한 번 젊음을

- 광주 청춘발산마을

70~80년대 방직공장이 생기며 일자리를 찾아온 여공들로 한때 활력이 넘쳤던 광주 발산마을. 도심화와 방직공장의 쇠퇴로 점차 빈집이 늘어나며 외로운 마을로 전락한 이곳에 청춘이 다시 찾아왔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힘을 합쳐 발산마을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다.

현대차 그룹은 발산마을 재생을 위해 디자인, 사람, 문화의 3가지 키워드로 사업을 실시했다. 마을 전체에 색을 입히고 폐가와 빈 상가를 매입해 식당, 카페, 미술관, 예술 작업 공간 등 다양한 청년기업을 입주시켰다. 현재 발산마을은 '핫 플레이스', '인생 여행지'로 등극하며 월평균 6,000여 명의 방문객이 찾는 인기 관광지로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3. 도시재생을 위한 아이디어 각축전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해 청년 일자리 해커톤을 주최하고 있다. 도시재생 분야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변화의 주체로 성장시켜, 다양한 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이슈를 조사·발굴하고 재생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해부터 서울, 전주, 춘천, 정읍, 부산, 인천 등 다양한 지역에서 진행했으며 각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의 개선과 확장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요즘 것들이 도시를 살리는 법

- 청년 해커톤

도시재생 해커톤의 가장 큰 장점은 대학생, 청년창업가, 디자이너, 문화기획자,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시선으로 도시재생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읍에서 진행된 해커톤에서는 전남대학교 학생들로 이루어진 팀이 정읍의 문화유산과 관광시스템을 체계화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시내버스를 동학 관련 유적지에 경유토록 하고, 1일 이용권으로 자유환승시스템을 갖춰 주변 상권과 관광 수익까지 연계하도록 시스템화하는 내용이다. 특산품의 대중화를 위한 귀리카페, 지역의 손맛을 보여주는 주민세프, 천원역포토스팟 등 정읍의 개성과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방안을 담았다.

춘천의 해커톤에서도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저렴한 임대료와 우수한 교통 여건을 활용해 춘천 원도심에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방안, 퇴폐업소를 없애고 유희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거점 공간 조성을 통해 약사리고개 확장으로 인한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기획 등이 선보였다.



4. 도시재생 전문가 만들기, 청년 인턴십

국토교통부와 LH는 지역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할 도시재생 뉴딜 청년인턴 220명을 선발했다. 정부의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라 지역 청년들에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것. 전국에서 5,400여 명의 청년이 지원하는 등 관심과 참여가 뜨거웠다. 선발된 인턴들은 지난 7월 도시재생 뉴딜 청년인턴 발대식을 갖고 OT를 진행, 이후 120여 곳의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배치되어 약 5개월 동안 지역 도시재생 업무를 기획하고 운영하게 된다.



“주민과 함께 지역에 스미는 중입니다”

군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청년인턴 이영현

저는 지난 한달 간 지역재생사업의 홍보물 제작과 그 외 주민협의체 회의, 마을 현장 답사 등의 다양한 업무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군포역세권 마을 기자단 분들이 직접 만든 '당동마을 소식지'를 발행해 주민협의체 회원들과 함께 소식지를 돌렸었는데, 동네 구석구석을 찾아가 많은 주민들과 지역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남은 기간도 도시재생 현장에서 더 많은 주민들을 만나 소통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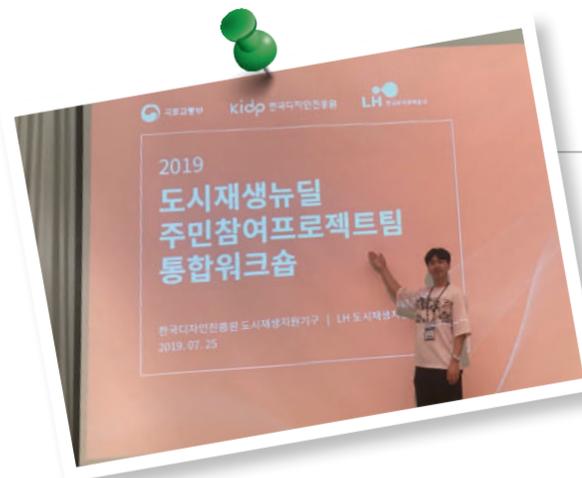


“제가 사랑하는 도시를 위해 일하고 싶어요”

울산 중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청년인턴 박형동

저는 올해 초 도시재생 현장 활동가로 활동하며 주민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가까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마침 도시재생 청년인턴십이 공고되었고 기쁜 마음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울산 중구 원도심 내 침체된 호프거리 인근 상인들과 협력해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한 '울산, 중구로다' 프로젝트, 태화강 고수부지를 활용한 태화강 치맥페스티벌, 마을목공소 만들기 등 울산 중구 지역에 선정된 프로젝트팀의 비즈니스 모델링 활동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도시재생 청년 인턴십을 통해 도시재생 청년 전문가가 되어 도시재생에 유용한 인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같이의 가치’ 를 실현한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부산 서구에 위치하는 아미초장동은 70~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인구 5만 명에 가까운 활기 넘치는 곳이었다. 하지만 고령화와 여러 제반 여건의 악화로 마을은 점점 온기를 잃어갔다. 그러던 중 엄마들의 공동체 ‘아미맘스’가 생겨났고, 그 움직임은 상상 이상으로 아미초장동을 변화시켰다. 아이들의 학습도우미 봉사단으로 시작한 아미맘스는 도시재생 사업을 만나 주거 환경 개선, 근린상권 회복, 마을 역사 바로알기 등 마을의 체질을 개선하며 새로운 내일을 그리고 있다.





소통을 기본으로 하나씩, 하나씩

아미맘스는 마을 아이들의 공부 좀 봐주려고 시작한 모임이었다. 그러다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면서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이 좋아질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 하나하나에 노력을 보탠 아미맘스는 결국 지역사회와 연계해 말벗도우미단, 청춘헤어숍 등 마을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 2013년, 아미골협동조합이라는 거점을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마을의 변화를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다. 살고 싶은 마을로 가는 첫 걸음은 체질 개선이었다. 매월 1회 정기 모임을 통해 꼼꼼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 방안을 논의 하면서 밑바닥부터 내실을 다져 올라갔다. 모든 변화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루어졌다. 좁은 집 구조로 인해 빨래하기가 여의치 않은 주민들의 건의로 '골목빨래방'이 만들어지고,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집수리단'이 꾸러졌으며, 주민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 창작공방'도 개설되었다. 그중에서도 '청소년도 주인이다'라는 기치 아래 아미초장마을의 청소년들이 모여 결성한 '청소년기획단 옴로'는 눈여겨 볼만하다.

우리 마을의 미래는 청소년이다

'청소년기획단 옴로'는 이름 그대로 마을 청소년들이 직접 여행을 기획하며, 자신의 꿈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 결성한 모임이다. 좋은 학군을 찾아 아이들이 떠나면서 마을의 미래까지 보이지 않던 차에, 마을에 남아있는 15명의 청소년들이 뜻을 모아 하나로 뭉쳤다. 이들은 경쟁이 아닌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올바르게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마을 어른들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이었다. 그 결과 청소년기획단 옴로가 발표한 '내일의 마을이 자란다'는 2018 부산 도시재생 박람회에서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을 수상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뤘다. 이로써 부산 서구는 '2018 도시재생 한마당'에서 '도시재생 뉴딜대상' 최우수상(내사장상)은 물론 '주민참여 프로그램 경진대회'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까지 수상해 도시재생의 모범적 사례임을 증명했다.

아미맘스,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다

부산 서구 아미초장동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 공동모지였다. 한국전쟁 당시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던 피난민들은 바로 이곳에 터를 잡았다. 세월이 지나 과거의 흔적이 지워졌지만 마을 곳곳에는 일본인 무덤의 비석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아미초장동은 피난민촌으로 이용되며 한 때 원도심의 상업배후지로 성장했다. 그러나 불편한 교통, 부족한 교육 및 편의시설 등 제반 여건의 악화로 점차 인구가 줄었다. 결국 2010년 인구수는 16,000여 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이 25.9%를 차지한다. 이렇듯 출구가 보이지 않던 아미초장동에 2006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바로 아미초교 학부모 대표였던 손정미 회장과 3명의 학부모가 만든 학습도우미 봉사단 '아미맘스'가 만들어지면서부터다.



3명에서 30명, 더 큰 아미맘스를 꿈꾸다

3명으로 시작한 아미맘스는 현재 30명의 회원이 함께 한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변화를 꿈꾼 이들의 활약은 대단했다. 어둡고 위험했던 골목은 밝고 안전해졌으며, 침체되고 무미건조했던 마을은 생기가 넘치고 있다. 내 부모가 살고, 내가 살고 있고, 내 아이가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겠다는 아미맘스의 진심은 주민들 마음속에 오롯이 전해졌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넘어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겠다는 아미맘스 손정미 회장과 아미초장 도시재생 담당자 김형원 주무관을 만났다.

Mini Interview

아미맘스

아미맘스 손정미 회장 인터뷰

Q. 도시재생 사례에서 '아미맘스'가 우수한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우수 사례로 평가받는 이유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에 직접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엄마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 의견을 내놓으면서 성과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참여는 아미맘스의 역량을 크게 키우기도 했죠.

Q. 도시재생 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그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마을 주민들의 입장과 생각이 제각각이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많이 다투기도 했어요. 하지만 자주 만나서 대화를 거듭할수록 마을의 변화와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게 되었죠. 교과서적인 말이긴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대화'인 것 같아요.

Q. 현재 아미맘스의 전반적인 활동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건강마을사업'이라는 주민협의체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마을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방충망 보수나 문고리 교체 같은 집수리를 해드리고, 엄마들이 직접 바짓단 수선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수선을 위해 재봉틀 다섯 대를 구입한 뒤 사용법을 배웠죠. 또 고령자들이 도보로

이동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난간 설치 사업을 건의해 실행에 옮겼고, 아이들과 환경감시단을 만들어 청결한 동네를 만들기도 했죠. 마을 화합을 위해 축제를 개최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미맘스가 축제의 기획부터 시작해서 무대 꾸미기, 부스 운영 등 모든 것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요?

주민들 스스로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센터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도움을 주셨으면 해요. 특히, 마을에 오래 거주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거점 운영의 연속성이 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



Mini Interview

부산 서구청 김형원 주무관 인터뷰



Q. 부산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소개해주세요.

저희는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성과가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과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재생사업 구역 내 센터를 개소해 운영 중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현장지원센터 내 마을 활동가 1명이 항시 상주하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매주 1회 현장지원센터 실무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Q. 부산 서구만의 도시재생 사업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서구 아미초장동은 일제 강점기 공동묘지였으나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촌으로 이용되었으며 이후 원도심의 상업배후지로 성장해 왔습니다. 사회·경제·물리적 쇠퇴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주환경도 매우 불량해 '2025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에서 활성화 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4개 분야의 주요 사업, 14개 분야의 세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석문화마을의 역사문화 보호를 위해 아미로 100년 근대 역사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역이 어떻게 발전되었으며, 이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주민 참여 확산 사업을 통해 주민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마을 발전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민 스스로 주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Q. 부산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추구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내년이면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이 끝을 맺습니다. 이 사업을 충실히 이행해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아미초장동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이끌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만들어 도울 계획입니다.



플랫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열다

글 박현아, 박지현(도시재생 스타트업 주식회사 익선다다 대표)

도시에 대한 관점의 전환, 도시재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최근 도시에 대한 가장 큰 화두는 단연 도시재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도시재생의 개념은 1990년대 후반에 논의되기 시작해서, 2000년대 후반 이후 급속도로 진전되었고, 오늘날에 이르러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막강한 방법론으로 부상하였다. 이는 88 서울올림픽 대회를 전후로 낙후된 지역을 재정비하고 새로 짓는 전면 철거 방식의 도시개발로 이어져 온 도시개발 관점이 최근에 이르러 '재생'의 방식으로 대전환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문화되어 있듯이 도시재생의 목적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 강화 및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며, 인구감소, 산업쇠퇴, 교외화, 도심공동화를 도시재생의 구체적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문제의 대두

도시재생이 일회적인 건설사업의 한계를 탈피해 장소 정체성과 인문경관으로서의 가치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경제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는 과거의 도시개발 방식이 건설사업 위주의 일회성에 그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도시개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험과 학습 효과가 전무한 상황인데다, 인구 감소와 도시 축소로 겪지 않았던 현상과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의 성과로 장소 자체가 상품화됨에 따라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고,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다시 인구가 유출되며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성과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 유입된 인구와 새로 만들어진 시설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해야 한다. 개념적으로는 당위성을 가진 말이나, 실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것이 도시재생 사업의 현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에 구체적인 접점을 제공하는 곳이 바로 플랫폼이다.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플랫폼의 구축

플랫폼은 상품이나 서비스 혹은 기술이 하나의 기반이 되어 생태계 내에 다른 참여자로 하여금 보완적인 상품이나 서비스 혹은 기술을 구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일상생활이나 예술,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적인 개념으로 확대돼 사용하고 있다. 이 '플랫폼'의 개념을 도시재생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독일의 경우 'solziale stadt'라는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추진해 정책적 플랫폼으로 사용했다. 지역자산을 활용하고, 재원을 통합해 지원하며, 지역관리체와 사업추진팀을 구축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지역자산의 측면에서 유휴지역을 파악해, 리노베이션해 공간적으로 명소를 만들었다.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인력으로 구성해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또한 지역고용단체가 지역관리체 역할을 하여 재생사업을 주도했고, 정기적인 주민설명회와 지역재생 사업의 성과에 대한 홍보 및 기사를 통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자신이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지역이 변화하는 모습에 주민들은 호응하며 도시재생 사업의 수혜자에 그치지 않고, 참여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 플랫폼은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하며,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자로 활약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은 사업 진행시 발생하는 현안과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게 해 갈등을 조절하고 만족감을 높인다. 즉,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은 주민 주도형 플랫폼이 얼마나 구축되느냐에 달린 것이다.

최고의 전성기를 재현하다 대구 북성로

북성로는 일본에 의해 대구읍성이 허물어지면서 생겨난 신작로다. 역사의 아픔 속에서 태어났지만 일제강점기에는 대구 최고의 변화가로, 광복 이후에는 사교와 문화의 거리로, 70~80년대에는 전국 최대 공구골목으로 화려한 전성기를 누렸다. 하지만 대구역 기능 축소와 IMF를 맞으면서 예전의 명성은 사라진지 오래다. 30년 간 인구는 70%가 감소하고, 거리는 한산해졌다. 빼곡하던 상점들도 빈 곳이 늘고, 20년이 훌쩍 넘은 노후 건축물들은 쓸쓸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다. 이렇듯 침체된 북성로에 최근 놀라운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고단했던 근대건물들이 리노베이션을 거치면서 문화와 예술을 덧입힌 특색 있는 공간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곧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더해져 북성로 최고의 전성기를 기대하고 있다.



과거 대구 최고의 변화가, 북성로

대구 북성로는 공구골목으로 유명하다, 온갖 철물, 부품, 공구들이 긴 거리를 따라 죽 늘어져 있다. 한때는 '북성공구골목을 한 바퀴 돌면 탱크도 만들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다.

1590년 대구읍성 축조와 1601년 경상감영(경상도를 관할하는 감영, 현재의 도청) 설치로 북성로는 경북도와 대구의 중심지였다. 이후 일제 강점기 때 철도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역이 들어서면서 읍성 북쪽으로 일본인 거주지와 상권이 생겨났다. 1907년, 박종량이 읍성을 허물고 그 자리에 도로를 만들면서 지금의 동성로, 서성로, 남성로, 북성로가 형성됐다. 해방과 한국전쟁 후로도 정치와 행정 기능에 문화와 금융, 상업적 기능이 더해져 북성로는 대구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대구역 기능이 축소되면서 유희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게다가 상권 이동으로 유희공간이 생겨났고,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로 거리는 낙후되기 시작했다.



변화는 사람들을 모으고

2018년 뉴딜 사업에 선정된 북성로 일대는 현재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 중이다. 아직 뉴딜 사업으로 맺은 성과는 없지만 이곳은 일찍이 자산 활용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됐었다. 특히 일제강점기 건축물의 외형을 간직한 채 문을 연 카페 '삼덕상회'와 동시대에 미국창고로 사용되던 곳을 공구박물관으로 만든 '북성로 공구박물관'도 눈에 띈다. 또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해 있던 1909년 1월, 일제의 속셈에 의해 순종이 가마를 타고 지나간 북성로 일대 약 2.1km를 어가길로 조성해 놓았다. 이 밖에도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이루어지는 대구예술발전소와 독립출판물 서점 '더 폴락', 기술과 예술이 융합돼 새로운 경쟁력을 만드는 공간 '모루' 등은 도시재생 활동 및 관광 거점으로 기대되는 곳들이다.

전국 최초 건축자산연계형 사업 실시

처음 북성로에 도시재생을 시작한 것은 '북성로의 재발견' 프로젝트였다. 대구 중구청이 민관협력으로 물리적인 건물 리노베이션에 나섰던 것이다. 일본식 적산가옥을 복원하고 100년 된 건물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했다. 더 나아가 훼손돼 사용하지 않는 건축자산을 문화와 예술, 복지 공간으로 연계하고, 역사문화 관광으로 발전시키는 건축자산연계형 도시재생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 결과 북성로 일원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됐고, 전국 최초로 건축자산연계형 사업을 앞두고 있다. 한옥과 근대건축물은 리노베이션을 통해 개발과 역사적 상징성을 살리고, 경사감영과 대구읍성은 원형을 복원시켜 과거의 영광을 되살릴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구근대교육역사관 설립, 주민들을 위한 공공복지 허브 조성 및 수제화 산업 지원 등 사람들의 발길을 모을 다양한 플랜들을 마련하고 있다.





도시의 고립을 푸는 열쇠, 정원

글 오경애(작가, 가든디자이너)

2012년 올림픽을 즈음하여 영국 런던에서는 대대적인 캠페인이 일어났다. 도시 곳곳 버려진 장소 혹은 활용 가능한 공공의 장소에 2천 개의 텃밭정원을 만들어보자는 것이었다. 'Capital Growth'라는 단체로 만들어진 이 2천 개의 텃밭 네트워크는 지금도 그 활동이 활발하다. 채소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도시인들에게 교육시키고, 얻어진 채소를 이용한 요리 강습과 수확철이 오면 주민들은 축하 파티를 연다. 런던 안에 이런 2천 개의 작은 커뮤니티가 있는 셈이다. 커뮤니티 가든이 활성화된 시점은 세계1,2차 대전과 경제대공황의 시대였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루즈벨트 여사는 백악관에 채소밭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텃밭정원을 장려했다. 2009년 미셸 오바마가 백악관 텃밭을 만들어 채소를 싫어하는 딸들에게 채소 섭취의 중요성을 가르쳤던 것보다 훨씬 오래 전 일이다. 유럽과 미국은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을 때 주민 공동의 이 채소밭을 만들어 먹을거리 생산은 물론 자신들만의 끈끈한 유대감을 만들어내게 했다. 그래서 이 텃밭정원을 다른 말로 '승리의 정원, Victory garden'이라고도 했을 정도다.



지역 공동체 정원은 버려진 공터나 혹은 기존의 공원 부지를 활용해 만드는 일종의 공적 공간이다. 그러나 모두에게 문이 열려있지만 그 안에 소속된 사람들에게만 소통이 되는 또 다른 의미의 사적 공간이기도 하다. 이 커뮤니티 가든이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된 논문이 많다. 미국 콜로라도 덴버 시의 결과를 보면 가든을 일구는 사람들의 경우는 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 채소의 소비량이 5배가 넘는다. 채소의 소비량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지역인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발달리즘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쓰레기를 버리거나 우범화된 지역이 텃밭으로 재탄생을 하면서 사회, 경제적 효과가 창출된다.

20세기 이후 인류는 엄청난 도시문화를 일궜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건물에 둘러싸인 도시를 오죽하면 '콘크리트 정글'이라고 부를까. 물론 이 도시화가 불러온 생활의 혜택과 편리는 엄청나다. 하지만 자연과 농업생산과의 분리가 생겨나면서 스스로 고립되는 현상이 생겨났다. 그런데 이 고립이 최근 얼마나 치명적인지가 지속적으로 밝혀지는 중이다. 도시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쳐 도시인들 전체가 집단공황 증상을 앓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래되고 낙후된 도시의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도시가 비고 저소득층이 자리를 잡으면서 도시 전체가 사회적 취약지역이 된다. 이런 낙후된 도시를 다시 활력을 찾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해답을 도시재생사업에서 모두들 찾는다. 그런데 도시재생이 반드시 더 높고, 더 큰 건물을 짓고, 대대적으로 거주자를 늘리는 것에만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미 고개를 갸웃거리는 전문가들이 많다.



스페인의 코르도바라는 도시가 있다. 천년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곳이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 낙후된 곳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곳 골목골목에 주민들이 벽을 이용해 화분을 걸기 시작했다. 골목 외벽에 걸어진 이 화분은 차츰차츰 그 수가 늘어 코르도바 옛 골목길을 꽉 채웠다. 관광객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사는 낙후된 골목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매년 수백만의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곳이 됐다. 잊힌 코르도바가 천년 만에 다시 화려하게 부활한 셈이다.

반면 두바이는 1970년대만 해도 소박하고 아름다운 해변을 가졌던 어촌마을이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어부였던 이곳은 항구를 중심으로 소박하지만 평온한 삶을 이어갔다. 그런데 이곳에 거대한 개발붐이 일면서 10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이 즐비하게 생겨나고 세계 최고의 쇼핑, 금융의 도시로 탈바꿈했다. 지금 그곳은 전체 인구의 90퍼센트가 외지인(외국인)이고, 현지인들은 비싼 아파트와 건물은 엄두도 낼 수 없다. 어부들은 직업을 잃었고, 건물의 청소부가 되었거나 노점상을 전전하는 중이다. 겉은 화려하고 엄청난 부가가치가 생겼다고 하지만 정작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재생사업이 아니었던 셈이다. 물론 두바이의 도시개발은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어 복사되고 있고, 같은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도시의 개발과 재생인지, 왜 해야 하는 건지, 여기에서 분명히 찾지 못한다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 도시의 재생도 마찬가지다. 더욱 완강한 철옹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고립을 풀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과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열쇠를 찾아야 한다. 나는 적어도 그 열쇠 중 하나가 정원에 있다고 믿는다.

천년의 시간이 흐르는 그 골목을 거닐다 강릉 시나미 명주거리

강릉시청에서 그리 멀지 않은 남대천변 동네 명주동은 오래된 목조가옥과 한옥, 일제강점기에 지은 적산가옥 그리고 조선시대 강릉의 관청이었던 강릉대도호부 관아와 옛 강릉읍성의 성터까지 수백 년을 아우르는 문화유적들이 남아있는 노천 박물관 같은 곳이다. 명주(溟州)라는 지명이 신라시대 강릉을 지칭하는 말이었다는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이 거리는 물경 천년을 훌쩍 뛰어넘는 유구한 역사를 품은 골목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강릉의 중심가는 명주동이었다. 관공서(시청)가 위치하는 곳에는 틀림없이 사람과 돈이 흘러들게 마련이고, 명주동은 그 덕분에 소위 강릉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동네'로 손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강릉시청 청사가 홍제동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명주동의 시간은 그 자리에 멈추고 만다. 이후 15년여 세월 동안 쇠락해 가던 명주동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 '시나미'란 '천천히'를 뜻하는 '시나브로'의 강원도 사투리다. 천천히 걷고 싶은 길, 도시재생으로 되살아난 강릉시 명주동에 위치하는 천년 역사의 골목 '시나미 명주거리'를 걸어보자.

강릉
Gangneung



- 1 명주거리 곳곳에 읍성터 같은 오래된 역사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 2 골목 안의 어느 주택 담벼락에 그려진 벽화
- 2 파란 대문과 초록빛 녹음의 컬러가 대비를 이룬 풍경이 싱그럽다

유구한 역사 위에 문화가 스며든 골목, 명주거리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명주동을 어엿한 강릉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60~70년대에서 정지한 듯 철지난 풍경들은 '뉴트로'가 유행함에 따라 명주동을 트렌디한 공간으로 바꾸어 놓은 것. 오래된 방앗간 건물을 고스란히 활용한 갤러리 카페 '봉봉방앗간', 낡은 적산가옥을 리모델링해 카페로 운영 중인 '오월' 그리고 남대천과 맞닿은 골목 끝자락에 숨어있는 북카페 '명주서가'는 요즘 명주골목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핫플레이스다. 물론 명주골목에 카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커다란 교회건물에 들어선 '작은공연장 단'에서는 연극이나 콘서트가 열리며, 강릉의 지역 문화를 선보이는 문화 플랫폼 '문화점빵'을 운영하는 파랑달 역시 명주골목에 위치한다. 남대천 뚝방길과 35번 국도(경강로)가 만나는 삼거리에서 남문길을 따라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강릉 최초의 마을 박물관인 햇살박물관이 위치한다. 2층 주택을 리모델링해 꾸린 햇살박물관 1층에는 명주동의 옛 사진들이, 2층에는 주민들이 실제로 사용하던 TV, 전화기, 타자기, 다리미 등을 전시해 놓았다. 또한 햇살박물관 뒤편 골목길을 따라 동쪽으로 건다보면 명주배롱 주차장에서 조선시대 읍성의 흔적과 마주하게 된다.



조선시대 관청, 강릉대도호부관아

명주거리 북쪽 입구의 길 건너편에는 조선시대 관청인 강릉대도호부관아와 객사 역할을 했던 임영관이 말끔하게 복원되어 있다. 한때 300칸이 넘는 규모에 달하는 규모까지 이르렀으나 일제강점기에 임영관 삼문과 칠사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각들이 훼손되었다.



근현대 의상 입고 인증샷 남겨볼까?

‘문화점빵’이라는 문화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파랑달 (www.parangdal.co.kr)에서는 방문자들이 명주거리를 돌아보며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근현대 의상을 대여해 주거나, 인문여행을 테마로 하는 드라마틱 투어 ‘시나미 로컬 기행’을 진행하고 있다.

갤러리 카페, 봉봉방앗간

‘봉봉’이란 프랑스어로 ‘좋아좋아’라는 뜻. 명주거리에서 가장 먼저 알려지기 시작한 봉봉방앗간은 옛 방앗간 건물을 그대로 활용해 독특한 갤러리 카페다. 예술인 4명이 의기 투합해 문을 닫은 방앗간을 인수했고, 지난 2011년 카페로 새 단장 했다고 한다. 주인이 직접 내린 커피와 함께 수제 쿠키도 맛볼 수 있다.



동심 사로잡은 북카페, 명주서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책으로 가득한 북카페. 명주거리가 남대천과 맞닿아 있는 골목 끝자락에 자리 잡은 이곳은 아이들과 함께 명주거리를 방문한 부모들에게 인기가 좋다. 바로 옆에는 산뜻한 외관이 돋보이는 칠카페가 위치한다.



아날로그 감성이 좋은 여름1957

명주서가와 가까운 임영로99번길 골목에 꼭꼭 숨겨진 아날로그 감성 카페. 핸드 드립 커피가 맛있다. 그 이름처럼 1957년에 지어진 옛날 가옥을 개보수해 카페로 활용하고 있으며 목공예 공방도 겸하고 있다. 불임성이 좋은 고양이 순이도 만나보자.



식도락 여행 Tip. 금성해장국

명주거리의 로컬 감성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면 명주동 토박이들이 즐겨 찾는 동네 맛집을 방문해 보자. 햇살박물관에서 불과 50여 미터 거리에 자리 잡은 금성해장국은 메뉴가 소머리국밥 단 한 가지다. 테이블 4개에 불과한 작은 식당이지만 오랫동안 명주동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국밥 한 그릇에 5천원으로 가격도 착하다.

즐서서 먹는 맛집 알고 보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운영

새로운 가치를 입고 활기를 되찾은 도시재생 지역들.
 독특한 아이디어를 만나 발길이 모이는 거리, 미술관으로 탄생한
 폐공장 등 도시재생은 쓸모를 다한 곳곳에 온기와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특히 지역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인장은 도시재생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더해주는 플랫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그들이 운영하는 훈훈한 맛집을 소개한다.



관덕정 분식_제주
 제주 제주시 관덕로8길 7-9
 064-757-0503



청수정_순천
 전남 순천시 공마당길 47
 061-752-5280



옥봉루_진주
 경남 진주시 진산로 9번길 13-4
 070-3990-2478



행복담은 한그릇_대전
 대전 대덕구 대전로 1020번길 23
 042-525-6012



맛있는 국수집_천안
 충남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3길 7-1
 041-568-0191



어슬렁정거장_서울
 서울 마포구 동교로 185-6
 02-6338-6445



빨간콩 진지박물관 음식이야기_청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안덕벌로 43
 043-213-3572



행복한 수라상_대구
 대구 달서구 용산서로 72
 053-525-7071



맛있는 밥집 예당_울산
 울산 북구 두부곡2길 4-1
 052-271-7760



감천아지매밥집_부산
 부산 사하구 옥천로 75번길 17
 070-8818-4405



도시재생 분야 43개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지난 9일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사업 분야 43개 기업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육성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국토교통 분야에 특화된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 작년에 도입됐으며, 현재 46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된 공모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위원회 심사 등을 거쳤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재정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에 대한 참여 자격이 부여되고, 사업화지원 심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실행을 위한 보증심사 시 가점 부여, 융자한도 상향(중사업비의 70%→80%)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향후 사회적기업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며, 오는 2022년까지 도시재생에 참여할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매년 50개 이상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재생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결

지난 1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도시재생법을 통해 지구 단위의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 국가와 지자체가 재생 효과가 우수한 점 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사업 인정제도 등이 담겼다. 특히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지정해 도시재생 대상 지역 일부를 혁신지구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계획, 주택·업무용 시설의 건축계획,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시행해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다만,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와 지역 기여를 위해 지자체, 공기업 등 공영개발자만 사업시행이 가능하며,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지역의 재생을 위해 재투자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된다.



SNS 기자단 1기 해단식 및 2기 발대식

지난 7월 10일 창신송인 도시재생 지역 내 주민공동시설인 '토월'에서 '도시樂특파원'의 1기 해단식 및 2기 발대식이 진행됐다. '도시樂특파원'은 도시재생 뉴딜 SNS 기자단의 명칭으로, 직접 취재 및 영상을 촬영해 공식 블로그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의 이야기를 알리고 있다.

해단식에서는 1년 동안 수고한 1기 기자단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볼펜과 수료증을 전달했다. 또 미션 참여도와 완성도 등을 평가해 최우수 기자(이영현)와 우수 기자(전여정, 김창일)를 시상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진 발대식에서는 SNS 활용법과 저작권과 관련된 전문가의 강연과 도시재생협동조합에서 주관한 도시재생 강의와 현장투어가 진행됐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직접 보고 느낀 2기 기자단은 주민들의 행복과 직결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 확산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조성 및 확산 등의 내용이 담긴 '제3차 스마트시티 도시 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전국적으로 25곳 이상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스마트시티 조성 및 확산을 위한 5년 단위 중장기 로드맵으로 공간·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도시문제 해결, 시민을 배려하는 스마트시티 조성, 혁신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협력 등을 목표로 한다. 현재 정부는 스마트시티를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집중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도 더했다. 국토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스마트시티가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신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꾸미 님의 <담양 추억의 골목>

담양에 있는 이곳은 친구들과 함께라면 사진 찍고 놀기 좋은 곳, 부모님과 함께하면 옛 추억 즐기기에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많은 옛날 물건들을 어떻게 구했는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가을바람 살랑 부는 요즘 딱 좋은 여행지랍니다!



xkakfka 님의 <1913 송정역시장>
사진으로만 보고,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입구를 들어서서 순간 분위기가 감이더군요!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는 물론 과거라 현재가 공존하는 뉴트론한 분위기가 꼭 시간여행을 온 듯 했습니다.



연필깎이 님의 <돈의문 박물관 마을>

돈의문 박물관 마을은 옛 건물들을 활용해 예술가들의 아지트로 만든 곳입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절만 활용하면 새롭고 특별한 무언가가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ke_loo4 님의 <명월국민학교>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곳입니다. 폐교된 국민학교를 개조해서 카페로 만든 곳이에요. 학교의 옛 모습을 최대한 살리고 이름은 그대로 사용하더라고요. 뉴트로 감성 가득한 소품들과 인테리어 덕분에 사진 찍기도 그만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잊지 말고 들러보세요!



하나 님의 <구포>
부산 구포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도시재생 지역이에요. 하지만 낙동강 뷰를 시원하게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가 포인트고요,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구포옥수 체험관과 복구 근대역사관, 독립운동의 뜨거운 정상이 생생한 만세거리의 벽화, 구포시장 등이 자랑거리죠. 특히 숨겨진 로컬 맛집과 새로운 맛집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어 비평가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도시재생 뉴딜
블로그 웹진
퀴즈 당첨자 소개

뉴트로 감성 가득한
도시재생 여행지 추천

QR코드를 스캔하면
도시재생 뉴딜 공식 블로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Q 매거진 읽고 커피 한 잔! 블로그 * 매거진 CROSS QUIZ!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처럼
도시재생 뉴딜의 새로운 슬로건을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시재생은 무엇인가요?
공감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참여자 중 20명을 선정, 15명에게는 커피 쿠폰을, 5명에게는 영화예매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참여 기간: 2019년 9월 3일 ~ 15일)

A. 퀴즈 답변 작성하러 가기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도시재생 뉴딜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newdeal4you>)에
접속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도시재생 뉴딜
유튜브가
오픈했어요!



도시재생 29초 영화제 시상식 개최



지난 7월 1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재생 29초 영화제'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 처음 열린 이 영화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내가 사는 우리 동네 이야기'라는 주제로 6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했고, 총 290개의 작품이 접수됐다. 시상식에서는 10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돼, 대상 7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영예의 대상은 김세현 감독의 '그래, 도시재생 뉴딜로 잘 살아보자!'가 뽑혔다. 이 작품은 젊은 남녀가 쇠퇴한 도시에 대한 시각 차이를 극복하고 도시재생을 통해 다시 잘 살아보자는 이야기로 주인공의 연기와 연출력이 돋보였다. 안총환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영화제에서 보여준 기대와 관심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잘 반영해 그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하겠다."고 말했다.

수상작은 도시재생 뉴딜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kfHMA9CTRug>)와 도시재생 뉴딜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newdeal4you>)에서 확인할 수 있다.